

<한국후꼬꾸(주), 현대차그룹 ‘제네시스 우수 협력사’ 선정... 글로벌 품질 경쟁력 입증 >



(사진) 23일 한국후꼬꾸 보령공장에서 열린 ‘제네시스 우수 협력사’ 명패 수여식에서 현대차그룹 황춘식 상무(오른쪽)가 한국후꼬꾸 권익준 대표이사(왼쪽)에게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한국후꼬꾸(주)(대표이사 권익준)가 현대자동차그룹(이하 HKMC)으로부터 ‘제네시스(Genesis) 품질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어, 2026년4월23일 충남 보령공장에서 우수 협력사 명패 증정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완벽한 품질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협력사로서 한국후꼬꾸의 제조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명패 수여식에는 HKMC 부품개발프로젝트실장 황춘식 상무가 참석해 한국후꼬꾸 권익준 대표이사에게 직접 명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성과를 격려했다.

황춘식 상무는 축사를 통해 “제네시스가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독

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후코꾸와 같은 파트너사가 보여준 집요한 품질 집착과 기술 협력 덕분”이라며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권익준 대표이사는 “이번 선정은 보령공장을 비롯한 전 사업장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결실이며, 앞으로도 제네시스의 품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임직원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현대차그룹은 우수 협력사 선정을 기념하여 한국후코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커피차 이벤트(Coffee Truck Event)’를 부상으로 제공했다. 현장 임직원들은 업무 중 휴식 시간을 통해 커피와 음료를 나누며 선정의 기쁨을 공유했다.

한국후코꾸 관계자는 “제네시스 우수 협력사 선정은 당사가 추구해온 ‘품질 경영’의 결정체”라며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전기차(EV) 및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부품 시장에서도 품질 주권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후코꾸(주)는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자동차 부품 강소기업으로, 보령과 안산 등 국내 주요 거점을 통해 하이테크 부품을 양산하며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끝>